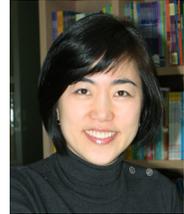


필리핀 코피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서승희 (연세대학교)
<archpeer@yonsei.ac.kr>



국문요약

코피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졌다. 한국사회에 코피노들이 미디어를 통해 소개 될 때에도 특정 이미지가 부각되어 타국의 여성과 아동의 수동적 모습을 강화하였다. 타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수동적으로 그려지는 코피노와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제한된 시각을 벗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사회 내부의 메커니즘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코피노 그들이 누구인가’가 아닌 ‘코피노를 바라보는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성찰적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코피노의 존재는 한국사회 남성이 대한민국이라는 지리적 영역 바깥에서 행한 일을 국가 내부적으로 묵인함으로 가능했다. 양육비 청구를 위해 갑작스러운 등장한 코피노와 그들의 어머니의 존재는 한국사회에 매우 낮은 풍경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수동적이고 피해자적 이미지의 재현을 통하여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소비될 뿐이다. 이것은 그들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성이 부재한 여성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과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대상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피노 이슈는 아시아가 아시아를 하나의 참조체계로 놓고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구상해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수 있다. 이는 아시아 국가 간의 정서적 화해를 위해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과제이다. 서구 사회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가 서로 매듭을 풀어가고 유대의 확장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방법으로서의 아시아가 개념적

논의를 꾸준히 지속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한국의 성찰적 발걸음이 아시아 국가 간에 새로운 정동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코피노, 필리핀, 남성성, 한국의 남성, 미디어 재현

I. 시작하며

맥마혼 볼(William Macmahon Ball)은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에서 동아시아 혁명의 힘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외세의 개입에 대한 반동으로서 생겨난 것과 둘째, 아시아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로 인하여 발생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운명은 아시아인의 손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인종적 반항이라는 것이다(맥마혼 볼 1983, 5). 아시아는 지리적으로도 가장 많은 수의 국가들과 민족으로 이루어진 대륙으로 다양성만큼이나 국가 간에 서로 다른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의 복잡한 시간성과 국가마다의 중첩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잡한 역사성 위에 그가 “아시아의 운명은 아시아인의 손으로”라는 명제를 제시한 것처럼 그동안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타자의 침입으로 인한 폭력적 내정 간섭을 받아왔으며, 이는 새로운 자기해석성을 갖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를 ‘아시아’로써 ‘설명’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필자도 한 명의 아시아인으로 ‘아시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막상 아시아를 설명할 때 절대적 참조 기준은 서구사회에 의존하고 있다. 영어가 가장 익숙한 학문적 체계 속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를 참조체제로 삼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적 방법’은 언어의 부재와 상상력의 한계 속에서 설명의 ‘불가능성’을 느낀다. 그러나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저기 멀리 보이는 아시아에 대하여 더욱 설명력이 주어질 수도 있다. 볼이 서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성에 주목하고 특히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시점을 거쳐 근대로 변혁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때처럼 아시아 안에서는 ‘다르다’의 의미가 하나의 장벽이 되지만 그에게는 ‘다르다’의 의미가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아시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시아’를 ‘아시아적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과 아시아 밖에서 아시아를 지배/피지배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차일수도 있다. 볼이 일본주재 호주 대사를 거치면서 식민지배 국가인 서구사회가 피식민지배 국가인 아시아 국가를 정치, 경제적으로 통제하면서 사용한 무력은 오히려 동아시아의

예속된 민족을 지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후자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정치운동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러한 제각각의 시간성을 내포한 아시아 국가들은 또한 국가 간의 정동과 지리적 근접성에서 발생하는 한층 복잡한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와 아시아인을 이해하기 위한 ‘아시아를 아시아’로 그려보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 대한 상상을 지도적 경계로 한정하는 시각적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하나의 범주로서의 설정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서구사회 대 아시아의 대립관계 즉, 권력의 차이에서 오는 정치·문화적 관계를 넘어서 아시아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 간의 관계와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이 국가의 경계 밖을 넘나들며 서로 만나게 되는 타자와의 관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국가 간의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고 국가 간 감정적 거리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서구가 아닌 아시아를 새로운 참조체계로 삼기위해 거쳐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전략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가의 구성원이 타국의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사회도 국가중심의 전략은 차치하더라도 국가의 구성원이 다른 국가의 구성원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향력은 아시아적 상상을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국가(구성원) 간 감정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코피노에 대하여 주목할 것이다. 코피노(Kopino)는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이 용어의 사용은 주로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관계를 상상하게 하며 한국사회에서는 한국 남성이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과 만남으로 낳은 아이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또한 한국에 다시 돌아와 연락을 두절한 한국 남성과 싱글맘이 된 어머니와 힘들게 자라고 있는 ‘불쌍한’ 아동이라는 낙인을 찍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코피노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은 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서 상상할 때 한계로서 다가오는 지리적 연결성을 넘어 국가 간에 얽혀있는 역사적 시간의 공유와 이 공유된 시간 속에서 국가마다 제각각 제국주의의 식민화와 전쟁의 상흔 속에서 아시아 국가 간에 쌓아온 상상적 감정¹⁾에 대한 역사적 반성과 성찰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필리핀이 한국인에 대한 감정일 수도 있고 확장하여 해석할 때 한국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적대적 감정일 수도 있다.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적 상상력의 확장을 위해서는 아시아

1) ‘상상적 감정’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현재 가지고 있는 감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이유를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역사적 사실은 거꾸로 현재의 해석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현재의 해석이란 언제나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정동을 살펴보고 친밀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가 일본에 가지고 있는 적대적 감정처럼 한국사회도 타아시아 국가에 미친 적대적 감정에 대한 성찰적 자세를 가지기 위해 이 논문은 코피노의 문제를 환기시켜 보려고 한다.

II. 기존문헌 검토 및 연구 배경

양현아(2001, 67)는 전쟁 중 학살과 성폭력 과정에서 여성과 여성성이 의미하는 바가 다시 만들어진다고 한다. 섹슈얼리티는 육체적 본질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이자 구체적인 관계의 산물이라고 할 때, 전쟁에 의해 구성된 섹슈얼리티에는 전쟁의 성격이 함축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전쟁 중 성폭력 속에서 여성/성이란 남성과 여성 간의 권력관계뿐 아니라 국가, 인종, 민족 등 다차원적 축 속에서 재/수정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결국 섹슈얼리티의 재/수정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강압적 성폭력이 개인의 삶의 차원으로 해석되기에 앞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한국사회 내부에서 혹은 국가 간 성폭력은 여성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 이상으로 여성의 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의미하며 피해자/국가는 가해자/국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라이파이 한’으로 부르거나 남태평양 키리바시 섬에 한국 선원들을 상대하는 현지 여성을 지칭하는 ‘포레 포레아’²⁾ 그리고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에게서 태어난 ‘코피노’는 모두 한국의 남성이 타국의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책임지지 않는 경우를 떠오르게 한다. 아이의 존재는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를 증명하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여성 혼자서 뉘으로 남아 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우위를 가지고 현지 여성과 만나게 된다. 국가 간 성폭력 혹은 성매매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서 타국에 있는 한국 남성들의 자녀들이 낯선 타자로서 등장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³⁾ 이러한 문제를 단지 개별적 남성의 문제로 환원하기 보다는 그들이 타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이라는 좁

2) 한국 원양어선이 키리바시 섬에 정박하면서 현지 여성과의 무분별한 성관계가 문제가 되어 2003년 키리바시 정부는 한국 어선의 정박을 금지하기도 하였다(경향신문 2005/07/06).

3) 코피노의 등장을 국가 간 성폭력이나 성매매의 증거로서 언급한 까닭은 모든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간의 관계가 일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코피노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 남성이 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 여성과 자녀를 출산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예고 없는 남성의 사라짐으로 인하여 여성과 자녀만 필리핀 현지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우월한 경제적, 군사적 지위로 현지의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여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사회에서는 어떻게 반응하여 왔는지 다각도에 걸쳐 한국사회의 반응과 태도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한국 사회에 알려진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에 주목하고자 하며 이들을 국민국가의 남성성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또한 아시아 국가 사이의 존재로 한국사회에서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재현을 시도하며 이들을 대상화 하고 있는지 한국사회의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사회가 이들을 주목하고 상상하고 위치 짓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도리어 한국사회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재현의 방식은 주로 미디어와 코피노를 돕는 활동 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는 어떠한 용어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코피노 관련 지원단체 활동에서는 이들에게 어떤 활동을 펼치고 코피노의 이미지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다시 말해 기존문헌 검토와 신문과 각종 인터넷 상의 코피노 관련 카페와 블로그를 분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단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코피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지만 대표적으로 지충남의 “필리핀 코피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실태와 지원방을 중심으로”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코피노를 국제이주의 부정적 결과물로 보고, 코피노에 대한 실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피노를 사회적 문제로 설정하여 ‘해결’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단선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코피노를 지원하는 ‘코피노단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지충남, 2015). 그러나 ‘코피노의 어머니’ 즉, 필리핀 여성을 단순히 저임금 직업을 가졌거나 유흥업소 종사자로 단정하고 있다. 또한 ‘코피노단체’의 활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활동단체가 단순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서술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피노의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오히려 코피노와 이들의 어머니를 수동적인 존재로서 대상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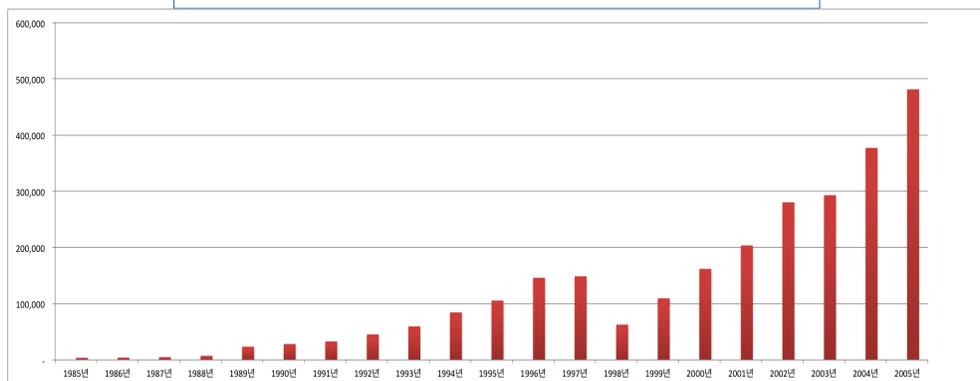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국제(지역)사회복지실천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코피노 어린이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연구가 있다. 이것은 현지방문 조사를 통하여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어린이재단’을 중심으로 코피노 지원활동에 대하여 분석한다. 해당 기관 참여관찰은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 Organization, NGO) 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히고,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사회복지실천을 가능성의 타진을 본다(김희주, 주경희, 우수명 2013). 그러나 이 글은 분석의 대상이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를 돕는 여러 단체 중 한 단체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코피노 지원 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는 부족하며, NGO단체에 대한 비교 분석을 도출해 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강석구의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1): 필리핀 형법”이 있다. 이것은

필리핀의 형법을 분석하여 법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에 대한 인식 등을 면밀히 살펴 볼 수 있었지만 코피노에 대한 언급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구체적인 정보나 분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논문들을 살펴보았을 때 코피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드물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 코피노들이 미디어를 통해 소개 될 때에도 특정 이미지가 부각되고, 한국 밖 타아시아 국가에 있는 여성과 아동은 수동적 위치에 놓여진다. 타자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묘사되기 십상인 코피노와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제한된 시각을 벗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사회 내부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필리핀 현지에서 여성을 만나는 한국 남성의 남성성과 코피노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들을 분석하여 ‘코피노 그들이 누구인가’가 아닌 ‘코피노를 바라보는 나는 누구인가’에 관해 성찰적인 검토를 시도한다.

〈그림 1〉 1985-2006 한국 필리핀 방문 관광객 수⁴⁾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필리핀에 한국인 유입은 1990년 중반 아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급증하였다. 소자본 개인 사업자 외 은퇴이민이나 선교사가 늘어났고 특히 한국사회에 영어의 사용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이나 연수를 가기 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필리핀을 중간지점으로 거쳐 가는 일이 많아졌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과 이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동남아로 여행하는 인구수가 증가했다. 2010년 11월에는 저가항공사들이 마닐라와 세부의 직항을 만들면서 항공편을 증가시켜

4) 2006년 7월부터 출국카드작성 폐지로 행선지별 집계 불가

필리핀과 한국 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리핀 관광청(The Department of Tourism)에 따르면, 2013년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약 10 만 명에 이르고 필리핀을 방문한 모든 관광객은 약 468 만 명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것은 약 116 만 6000 명의 외국인 관광객 4 명 중 1 명이 한국인인 것을 의미한다.⁵⁾ <표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필리핀의 한국인 수는 꾸준히 늘어나 2006년 필리핀에 가장 많은 수의 관광객이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이후 한국인의 필리핀 관광과 이주를 촉진한 요인으로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관광의 편의성 그리고 저렴한 비용, 30일간의 무비자 허용, 은퇴이민과 투자이민의 개방성과 저비용 영어연수와 초, 중, 고 학생들의 유학을 들 수 있다(지충남 2015, 278). 즉, 필리핀을 선호하는 이유로 낮은 비용과 편리한 접근성 및 영어의 사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4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역시 필리핀에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했다.⁶⁾

〈표 1〉 필리핀 방문 관광객 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한국	한국	한국	미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2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미국	미국	미국	한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3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4	홍콩	홍콩	홍콩	홍콩	홍콩	대만	중국									
5	대만	대만	대만	대만	대만	중국	대만	호주	호주	호주	호주	대만	대만	호주	호주	호주

* 필리핀 관광국 자료를 재조합 (<http://www.visitmyphilippines.com/index.php>)

필리핀 사회에 한국 남성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필리핀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는 경우도 늘어났다. 아이와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도 있지만 연락을 끊은 채로 한국으로 돌아와 여성과 아이만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코피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한국인과 필리핀 부부의 혼혈자녀를 뜻하지만 ‘코피노 문제’로 부각시킬 때는 필리핀 여성을 남겨두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온 채 연락을 두절한 남성으로 인해 필리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여성과 아이를 상상하게 된다. 코피노 아동은 현재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며⁷⁾ 그들은 어머니와 사는 경우, 조부모와 사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 형태를 이루고

5) “한국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필리핀 관 라이파이한 급증” (뉴스포스트세븐 2014/07/28)

6) “Manila Shelter Is Host to ‘Kopinos’” (월스트리트저널 2014/05/26)

7) 앞서 언급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만 명의 코피노들이 급증하여 3만 명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있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2007, 200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책임지지 못하는 남성’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노동하는 필리핀 여성’ 혹은 ‘외국인을 이용하는 여성’과 같이 그들을 설명하는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 국경을 넘나드는 남성성 유지 전략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통해 남성-개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 스스로의 군사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남성적 민족성의 핵심이(었)다(루인 2011, 83). “군대 다녀와야 남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수사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남성 주체가 ‘군대’라는 외부와 단절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남성으로서 요구되는 특정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남성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김우영 2015, 104). 한국은 1957년부터 국민개병(國民皆兵)제를 실시하였다. 국민개병제이란 한자의 풀이대로 보면 모든 국민이 병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 군인(병사)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군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1년 병역법 개정 이전까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에서 현역 입대가 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군대의 입대 가능성은 곧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병제는 또한 군대에 입대한 다양한 성격의 남성들을 균질한 집단으로 환원하며 병역을 ‘남성 국민의 의무’로 의미화 하였다(김우영 2015, 110). 군대는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하나의 발판으로 작동한다. 군대는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그가 속한 사회적 신분이 어떠한 예외 없이 거쳐 가야 하는 관문으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군대를 면제 받았다면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군대를 면제받거나 피하게 되면 더더욱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다.⁸⁾ 이러한 ‘남성’이 가는 군대는 의무이며 단절된 시간과 장소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창출한다. 이러한 문화는 소위 ‘전우애’ 등으로 불리며 정서적 공유를 나누게 된다. 군대는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었고, 군복무를 마친 남성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실질적인 혜택은 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김우영 2015, 112).

8) 가수 유승준은 2002년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군대를 가지 않게 되자 병무청에서 입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현재까지 입국금지는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국민=군복무’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주는 일례이다. 개인의 판단을 배신으로 국가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며 그에 대한 당연한 처사로 입국금지를 명령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다. (병무청.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꿈도 꾸지말라.” 경향일보 2015/12/04)

그러므로 한국의 남성성은 분단 휴전 체제하 국민개병제에 근간한 군사주의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류진희 2015, 59).

대한민국 근대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권위주의에 기초한 군사주의의 유산이 상당부분 개입하였다. 이는 베트남전쟁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김우영(2015, 118)에 의하면 베트남 전쟁은 한국이 해외에 파병한 최초의 전쟁으로 이 전쟁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남성성을 재구성하는데 일조하였다고 한다. 타국에 있다는 고립감과 전시라는 상황이 주는 압박감은 남성의 폭력성을 더욱 증폭시켰고 군인들은 그곳의 여성을 상대하는 경험을 통하여 남성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과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앞서 양현아도 언급하였듯이 전쟁의 시기 여성의 성은 새롭게 해석된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과 전선이 주는 압박감은 파병 군인이 여성을 스트레스 해소의 '도구'로 간주하며, 남성으로서 우월감을 재확인하도록 하였다(김우영 2015, 120).

그는 이어 파병군인들이 스스로를 점령자로 인식하고,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며 우월한 지위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한국의 파병군인은 미군과 동지애 관계를 상상하며 베트남인들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태도를 숨기지 않고 남성성을 상상했다고 말한다(존 베이님 2011; 김우영 2015, 121 재인용). 이러한 경험은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손상되었던 한국의 남성성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였다(김우영 2015, 121). 전쟁터에서 남성성의 재탄생과 한국사회 복귀 후 산업역군으로서의 주체성의 강화시키고 지속되는 군대의 의무 복무를 통한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획득은 한국사회 남성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국가 안에서 남성의 사회적 위치는 한국의 외부에 있는 한국 남성이 여성을 대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국이라는 법적 테두리 내부와 외부에서, 한국에서 획득된 '남성성'의 발현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칼 슈미트가 법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예외적 사람을 '결정'하는 것을 주권을 가진 자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타지에서 현지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넘기고 존재를 감추는 남성은 스스로가 법의 적용을 받는 존재이지만 실제적으로 법 적용의 예외적 위치에 있어 왔다는 것을 인식한다(칼 슈미트 2010).

그러나 타지에서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남성성은 베트남 파병기간 동안 베트남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라이파이한⁹⁾'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필리핀의 경우 베트남과

9) 라이(Lai)는 '오다.'의 의미를 가진 한자 '래(來)'의 베트남어로 경멸조로 혼혈을 부를 때 사용하며, '대한(大韓)'을 표기한 'DAIHAN'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과 한국인을 의미한다. 즉, 라이파이한은 '한국에서 온', '한국인과의 혼혈인'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현재 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1,500명 정도로 추산하는 반면, 현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1만 명 이상 존재한다고 추정한다(출처: <http://goo.gl/gDjG5W> 접속일 2015/12/25).

같이 한국의 군대가 파병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의 임신/장기 거주자 혹은 관광객이 빈번해지면서 현지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고 그냥 두고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가적 정치 경제적 우위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도 남녀의 만남에서 남성은 언제나 여성에게 자신이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여성에 대해 우월감을 증명해 왔다. 여자를 유혹하는 단계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남성들이 여성을 이끌고 우월하게 스스로를 위치 지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연애하는 동안에 먹고 쓰는 것을 모두 남자가 지불하면서 남자는 반대급부로 여성들로부터 정서적인 것부터 섹스까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루인 2011, 154). 이러한 남성의 우월감에 이미 베트남으로의 파병기간동안 라이파이한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제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경험적 아비투스¹⁰⁾를 가지고 있는 한국 남성들은 한국사회가 필리핀 사회보다 경제적 우위인 점을 인식하여 스스로를 우월한 지위에 둔다. 한국사회도 한국 남성들이 타국에서 벌이는 일이 현지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 국경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한국에 다시 돌아온 남성을 소환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이 벌인 일은 ‘그냥 덮어두는 것이다.

필리핀에는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외에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피노(일본의 영문명인 Japanese와 필리피노의 합성어)와 치피노(중국의 영문명인 Chinese와 필리피노의 합성어) 등도 있다. 자피노의 경우 일본 정부에서 그들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자피노를 비롯한 해외 혼혈아에게 취업비자를 주는 관문을 낮추고 어머니와 아버지 중 한 명의 확인으로 일본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적법도 개정하였다. 현재 1천 명 이상의 자피노들이 필리핀에 있는 7곳의 관련 재단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일본으로 가거나 필리핀에 있는 일본기업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무료로 가르쳐 준다.¹⁰⁾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1987년부터 필리핀 아메리카노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허가하였다(지충남 2015, 291).

한국 남성들이 국경 밖에서의 행위와 그것을 외면하는 국가 사이에 코피노들은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군대도 가지 않은 철없는 남성이 잠시의 일탈로서 저지른 실수로 간주하기에는 코피노는 누군가의 인생이 얽혀있는 매우 위중한 문제이다. 국경 밖에서의 일탈은 일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책임소재를 묻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10) “코피노, 아빠는 어디에? ‘자피노’ 지원책 비교 분석.”(MBC 2013/11/04).

2. 한국사회 코피노에 대한 상상

(1) 미디어를 통한 코피노의 재현

코피노는 그 동안 한국사회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이슈였다. 코피노라는 낯선 타자의 등장은 한국사회에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미디어는 코피노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한국인 아버지의 책임을 물었고 이들의 생활상의 이해를 위해 미디어의 이미지 재현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미디어의 재현 외에 이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코피노 활동단체(이하 단체)들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현지에서 코피노에 대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면서 한국 안에서는 후원자를 모으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코피노에 대해 소개하고 이미지를 전달하는 작업을 한다. 이 때문에 한국 내부에서 코피노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방식은 미디어와 코피노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를 통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언론을 통한 재현방식을 주목해 보면 미디어에서 코피노와 관련된 기사는 크게 2가지의 범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코피노의 아버지들에 관한 언급이다. 코피노의 아버지들이 상당수가 20대이며(심지어 10대일 때도 있으며) 이들은 주로 어학연수로 필리핀에 온 철없는 학생이라는 것이다.¹¹⁾ 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필리핀에 가서 현지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자신의 필리핀 체류 계획을 모두 마치면 자신이 낳은 자녀를 외면하고 한국에 들어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의 설명은 코피노는 현지에 성매매 관광을 온 사람들의 아이들이라는 것이다. 2015년 4월에도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를 통해 소위 ‘황제관광’이라고 불리는 원정 불법 성매매 행위가 발각이 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¹²⁾ 2004년 한국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한국 남성들의 불법이 확연히 드러나는 국내에서 보다는 적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로 원정을 나가게 되었다.¹³⁾ 필리핀 여성과 정식으로 교제하더라도 이를 ‘한국에 돌아올 때쯤 헤어지면 그만’인 일탈 정도로 여기는 것이다.¹⁴⁾ 즉, 한국의 영토 바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남성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11) 대표적인 기사로는 “성매매 관광” 전략한 동남아 어학연수 ... 코피노 친부 90%는 20대”(헤럴드경제 2015/10/11) 와 “밤문화 ‘황제관광’과 코피노”(KBSNEWS 2015/04/01) 이다.

12) “필리핀 황제관광 실체 해부: 100만원만 주면 2박3일 풀코스”(일요시사 2015/04/08)

13)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8건이었던 해외 성매매 검거자가 2010년에 78명, 2011년 341명, 2012년 274명, 작년엔 496명으로 5년 사이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프리티안 2014/09/16, 헤럴드경제 2014/09/16, 연합뉴스 2014/09/16, 그 외 관련기사 시사매거진 2006/05/05)

14) “양육비 소송 걸면 조폭 보내겠다.’ 코피노 두번 버린 아빠”(동아일보 2014/06/23)

일로 무마되어왔던 경험적 지식을 통하여 남성들은 해외에서의 ‘불법적’ 성적행위를 벌이고 한국에 들어온 후 자취를 감춘다. 이러한 남성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이것을 박정미(2011)는 한국의 지배적 형태와 비교하여 ‘묵인·관리 체제’로 설명한다. 성매매에 관하여 공과 사의 임계, 곧 화폐와 친밀성, 노동과 성, 지배와 쾌락 등 현대 사회의 이분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교차하는 접경이라고 설명한다.

두 번째는 필리핀 현지 여성과 코피노에 대한 설명이다. 강석구(2011)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에서 필리핀에서 강간이나 추행은 형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정조에 대한 죄’(제2권 제10편)로서 다루진다고 한다. 여성이 강간당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사고력을 잃었거나 성교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강간죄에 있어서는 중형주의, 나아가 극형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친고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 또는 그 부모나 조부모, 후견인 등에서 명백하게 용서받은 경우에는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은 범죄 입증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구형까지 매우 험난한 과정임을 말한다. 이는 여성의 성에 대하여 법적으로 매우 보수적 해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여성에게 강간한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와 가해자가 결혼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소송 자체를 종료시키며, 이미 가해자에게 부과된 형벌은 자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필리핀 여성의 자기해석에 있어서도 자신의 성적행위에 대한 해석이 매우 보수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필리핀 형법에는 한국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적유혹죄(seduction)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적유혹’이란 여성과 성교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성적유혹죄의 경우도 친고죄이며, 피유혹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제344조 제4항의 특례가 적용되어 죄가 소멸하게 된다고 한다. 즉, 필리핀에서의 여성의 성행위는 결혼제도에 안에서만 이루지도록 작동하고 있다. 필리핀은 여전히 매우 강력한 가부장 사회임을 알 수 있다(강석구 2011, 100).

한국 역시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이다. 한국적 상상에서 코피노는 ‘아빠 없는 불쌍한 어린 것’으로 상상되기 쉽다. 코피노와 함께 빈번히 등장하는 수식어는 “버려진”, “불쌍한”, “빈곤”, “끼니를 걱정하는” 혹은 “도움이 필요한”과 같은 수동적인 표현들이다(여성신문 2014/07/10, 매일뉴스 2015/01/29, 채널A 2014/06/27, 동아일보 2015/06/10). 코피노와 여성은 한국사회에 미디어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아 다시 한 번 제3세계 약자 여성의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은 코피노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미지로 재현된 모습이다.



〈그림 2〉 “우리아빠는 어디 있나요” 한국 몰려오는 ‘코피노’(매일경제 2015/01/29)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검은 피부색의 필리핀 여성의 모습은 이 여성의 무력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치마 입을 여성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은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낸다. 또한 여성의 기울어진 머리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 그림은 전형적인 가부장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 혼자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때문이 이 삽화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에게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남성의 부재가 더욱 드러나는 효과를 가진다. 더욱이 이 여성 뒤에 줄줄이 서 있는 어린 자녀들은 능력 없이 아이만 낳은 듯한 이미지를 전달하며 이들이 사회에서 매우 험난하게 살아가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무책임한 남성의 연락두절에 대해 가시적으로 드러내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필리핀 여성과 아이들의 수동적인 태도와 무기력함은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주체성을 해석해 내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11월에 소개된 YTN의 [“아빠, 그래도 고마워요”... 26년간 기다린 ‘코피노’]와 같은 기사는 26년간 소식도 없었던 한국남성에게 딸이 그래도 보고 싶고 같이 가족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들의 성관계는 ‘한번쯤의 일탈’로 묵인되는 것으로 인해 코피노를 언급하는 기사에서 도리어 남성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잘잘못을 떠나’ ‘그래도’ ‘따뜻하게 한번쯤은 용서해 줄 수도 있을 것’과 같은 환상을 갖게 한다. 즉, 코피노 이슈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강화하는 동시에 남성들이 ‘버린’ 여성과 아이들은 순종적 위치에서 이들의 일탈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2) 코피노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한 분석

미디어를 통해 한국 사회에 코피노가 재현되었다면 이들을 일상을 전하는 코피노 관련 활동 단체(이하 단체)는 현지에서 코피노를 직접적으로 접하고 그들에 대한 ‘사실적’ 내용을 전달하는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때문에 필리핀 현지에서 이들을 ‘돕고’ 있는 단체 활동을 분석을 통해서 그들이 코피노를 대하는 태도와 그러한 시각이 한국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고자 한다. 소위 코피노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나 ‘한국인의 야만성’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반하여 이들을 돕는 비정부기구의 활동은 한국인의 이미지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코피노를 돕는 단체들은 주로 코피노 이슈와 함께 생겨난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표2>에 있는 <필리핀 앙헬레스 코피노 아동센터>는 1970년부터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사회복지법인인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 단체를 제외하면 이들이 한국에 처음 소개되기 시작할 때 우후죽순으로 생겼다가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잠잠해지면 사그라졌다가 다시 언급이 되면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몇몇 단체들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단체의 운동성은 한국에서의 화제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2> 코피노를 돕는 단체들

번호	단체 이름	주요 업무
1	코피노 어린이 재단	영적, 지적, 사회문화적, 육체적 단련, 방과후 수업, 한국어와 한국 문화(풍물과 태권도)교육, 가족지원
2	코피시아협회	코피노, 필리핀봉사단, 미혼모, 해외봉사, 해외후원, 마닐라, 어린이돌보기, 미혼모자녀, 필리핀선교
3	희망고리	상설무료진료소, 결손가정 장학사업, 재정지립 소액지원
4	하은코피노복지미션센터	한글, 한국문화 교육
5	코피노 선교센터	치유사역(코피노후원, 미혼모후원, 깨어진 가정사역)
6	세부코피노어린이재단/코피노모자가족후원회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미혼모 지원
7	위러브코피노	아빠 찾기, 양육비 소송사업 대행
8	필리핀 앙헬레스 코피노 아동센터	학습지도, 급식제공, 한국문화체험, 한국어교실, 음악 클리닉 운영

* 굵은 글씨체는 종교관련 기관

단체들은 주로 인터넷에서 그들의 작업을 알린다. 필리핀 여성과 코피노를 돕는 단체는 약 10여개 정도이다. 숫자로는 20여개를 훌쩍 넘지만 카페의 회원수가 대부분 50명 미만에 심지어 재단법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회원수가 1명인 곳도 있다. 대부분의 웹 사이트가 2005-2008년을 기점으로 생겨났으며 현재 운영이 안 되거나 폐쇄된 인터넷 카페도 있다. 한 때 한국사회에 코피노에 대한 관심이 순간적으로 쏟아졌다가 곧 사그라진 모습이 인터넷 카페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있는 셈이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카페를 위주로 활동을 하고 인터넷 카페는 주로 한국에서 후원금을 받거나 종교단체와 같은 경우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오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받아 현지 여성과 아이를 돕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크게 2개의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선교사 혹은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필리핀으로 간 사업자 혹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이 되는 방식이다. 모든 단체의 공통점은 한국인이 주축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코피노가 한국의 '혈육'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들에게 한국어교육이나 한국의 전통문화를 익히는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활동 외에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위러브코피노(We Love Kopino, WLK)>라는 단체이다. 2015년 말에는 이 단체는 코피노들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들 약 30명가량 인터넷에 얼굴을 공개하였다. 이 블로그에서 얼굴을 공개한 이유는 남성에게 양육비 청구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이나 남성의 가족이 필리핀 여성과 일단 연락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면 블로그에서 얼굴을 내리는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하고자 할 때 법률기관과 여성을 연계해 주며 청구비용의 약 25%를 수수료로 챙기기도 한다. 이 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단체에서 코피노의 친부를 찾는 일에 발 벗고 나서지 않는다. 이들 단체에서의 주요 활동 중 공통된 사항은 모자의 경제적 지원(다른 말로 미혼모 지원이라고 하기도 한다)과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코피노를 대상으로 한국문화 익히기 혹은 한글교실 운영이다.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문화(사물놀이, 한복입기 등)와 한글학습은 이들의 친부가 단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코피노는 혈통상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혈통에 근거한 생각으로 현지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 보다는 한국적인 것들을 이들에게 주입함으로써 한편에서는 이들을 "버렸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들을 동정적 시선으로 "주워 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들의 사업이 한국의 후원자들에게 보고될 때 코피노와 여성은 어쩔 수 없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후원이 곧 단체의 존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성격의 단체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있는 종교단체를 들 수 있다. 동남아 지역 중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 힌두교나 불교가 주요 종교인 국가들에 비하여 개신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낮다. 필리핀은 특히 약 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이것은 한국의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기독교의 영향이 미치지 못한 선교의 터전이나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반증이라면, 신을 믿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명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선교활동의 하나로 운영되는 코피노 활동 중에는 자연스럽게 코피노와 그들의 친모에게 포교활동이 사업 목적 중의 하나의 주요한 과제로 편입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을 ‘돕는’ 행위가 대상화될 위험이 크다. 이것은 거칠게 표현하면 한국의 선교사들이 코피노를 자신의 목적의 수단으로서 삼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피노 사업을 ‘글로벌 구제’라고도 하지만 이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에서 보면 하나같이 코피노와 그들의 친모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 여성들과 아이들의 얼굴을 동의 없이 아웃팅시키고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타자의 고통이 자신의 사업적 성과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Ⅲ. 마치며

주디스 버틀러는 국가는 특정한 영역을 구획 짓는 사법적, 제도적 구조이며 국가는 시민권에 따른 의무와 권리의 매트릭스를 운용하며, 우리를 법적인 의무로 속박하는 조건을 만든다고 말하였다. 국가는 민족의 이름으로 구성원들을 결속하고 구속하면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민족의 기억을 강렬하게 혹은 강제로 불러내는데(주디스 버틀러 · 가야트리 스피박, 2008: 13-14) 그렇다면 코피노의 경우 아버지의 국적을 갖지 못하고 현지에 남겨져 있는 그 상태는 어느 국가에 속해야 하는가? 구성원이 한 국가에 속하고 속하지 않았음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구성원으로 속하지 못할 때 그들을 범주 밖으로 밀어낼 때 결핍, 박탈, 추방 상황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권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칼 슈미트에 따르면 법과 법 바깥에 있는 존재는 주권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나뉘는다고 한다. 주권을 가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지고 안 가지고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코피노의 존재는 한국사회 남성이 어떠한 남성성을 그들의 아비투스로서 가지고 있었는지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지리적 영역 안에서 국민국가의 성원 중 군대를 필한 제1주체로서 남성성은 그들이 한국의 영역 바깥에서 저지른 일도 국가 내부에서 묵인되었다. 이들에 대한 한국 내부에서의 처벌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코피노의 친모가 양육비 청구를 위해 한국사회에 등장한 것은 매우

낮선 풍경일 수밖에 없었다.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자신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국민의 한 명으로 인정받았던 남성들은 자본주의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격을 빼앗겼다는 박탈감에 시달리고(손희정 2015, 22) 이러한 박탈감의 회복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필리핀에서 필리핀 여성을 통해 회복되었다. 초국적 자본주의화와 글로벌 자본주의의 여파인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상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남성성은 한국 남성과 타자화된 지역의 아시아 여성을 자신들의 주체성 회복의 도구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 미디어를 통한 코피노에 대한 수동적이고 피해자적 이미지의 재현은 그들에 대해 이미 한국의 남성에 의해 짓밟힌 이미지를 한 층 더 부각시킬 뿐이다. 코피노와 그들의 친모를 단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로 소환하여 여전히 한국사회의 영원한 타자로 위치 지으면서 그 사이의 간격을 줄이지 않는다. “불쌍한 그들에게만 도움만이 필요할 뿐이다”와 같은 저급한 정서로 코피노를 바라보는 것은 그들에 대한 한국의 성찰적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말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 선교전략으로서의 필리핀과 선교 대상자로서의 코피노와 친모는 단지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들을 향한 진정한 친절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코피노 이슈는 한국이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에 대한 상상을 확장해 가기 위하여 아시아 국가 간의 정서적 화해를 위해 반드시 되돌아봐야 하는 과제이다. 서구사회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가 서로를 참조체계로 인정하고 유대의 확장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방법으로서의 아시아가 개념적 논의를 꾸준히 지속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한국의 성찰적 발걸음이 아시아 국가 간에 새로운 정동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단행본 및 논문

- 강석구. 2011.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I)”.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5.
- 김우영. 2015. “특집논문: 1970년대 [창작과 비평]의 이론과 실천; 남자(시민) 되기와 군대-1970년대 [창작과 비평]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6, 103-141.
- 루인. 2011. “의료 기술 기획과 근대적 남성성의 발명”.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 모음.
- 류진희. 2015. “무기 없는 민족의 여성이라는 거울.” 『문화과학』, 48-61.
- 맥마흔 불. 손중기 역. 1983. “1장: 아시아의 상황.” 『아시아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학문과 사상사, 3-28.
- 박정미. 2011.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목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손희정. 2015. “혐오의 시대-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 32, 12-42.
- 양현아. 2001. “증언과 역사쓰기-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 역사』 60, 60-96.
- 주디스 버틀러 · 가야트리 스피박. 주해연 역. 2008.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산책자.
- 지충남. 2015. “필리핀 코피노에 대한 탐색적 연구.” 『OUGHTOPIA』 30(1), 269-305.
- 칼 슈미트. 김항 역. 2010. 『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그린비.

— 미디어

- 경향신문 2005/07/06 “어글리 ‘꼬레꼬레아’ 파문확산”
- 시사매거진 2006/05/05 “성매매 특별법의 그늘 ‘원정매춘’ 추태”
- MBC 2013/11/04 “코피노, 아빠는 어디에? ‘자피노’ 지원책 비교 분석”
- 월스트리트 저널 2014/05/26 “Manila Shelter Is Host to ‘Kopinós”
- 동아일보 2014/06/23 “양육비 소송 결면 조폭 보내겠다’ 코피노 두번 버린 아빠”
- 채널A 2014/06/27 “‘코피노’ 빈곤 늘서 허우적... 교육·직장 꿈도 못 꺾”
- 여성신문 2014/07/10 “버려진 코피노들에게 희망의 바람을”
- 뉴스포스트세븐 2014/07/28 “한국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필리핀 판 라이파이한 급증”
- 프레시안 2014/09/16 “성매매방지법 10년, 해외 원정 성매매 급증”

- 매일뉴스 2015/01/29 “우리아빠는 어디 있나요” 한국 몰려오는 ‘코피노’
- KBSNEWS 2015/04/01 “밤문화 ‘황제관광’과 코피노”
- 일요시사 2015/04/08 “필리핀 황제관광 실체 해부: 100만원만 주면 2박3일 풀코스”
- 동아일보 2015/06/10 “아빠 찾는 코피노 아이들”
- 헤럴드 경제 2015/10/11 “성매매 관광’ 전략한 동남아 어학연수 ... 코피노 친부 90%는 20대”
- YTN 2015/11/29 “아빠, 그래도 고마워요”... 26년간 기다린 ‘코피노’
- 경상일보 2015/12/04 “병무청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꿈도 꾸지 말라”

● 투고일: 2016. 2. 9. ● 심사일: 2016. 2. 10. ● 게재확정일: 2016. 2. 23.

An exploratory study of Kopino in the Philippines

Han, Seunghee
(Yonsei University)

Research on Kopino has been rarely conducted. Even when kopino was introduced to South Korea, media highlighted and strengthened the typical passive and powerless images of the women and children in the Philippine. For a broad understanding of others, this study focused on the internal mechanism which is making the limited perspectives. Therefore this is about 'Who am I overlooking Kopino' rather than 'Kopino, who they are'.

The presence of Kopino could be possible under the Korean society sufferance about what Korean males have done outside Korea border. The presence of the sudden emergence Kopino and their mother to claim child rearing expenses could be a very strange landscape in South Korea. However the perspective on them is only to be consumed as the images of passive victim through the media representation which stresses their "patheticalness" and "helplessness". It also presents them as a woman living without man in the patriarchal society. On the other hand, some of Kopino support NGO shows them with objectification as a mission field.

Kopino issue could be one of the steps to build a method of Asia which allows Asia as one of the references. This is a challenge for Asia countries to resolve emotional conflicts between inter-Asian countries. With resolving the nod of conflicts and expanding emotional intimacy, introspective attitude would bring new affect among Asian countries.

<Key words> Kopino, the Philippines, Masculinities, Korean male, Media representation